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1. 15(화)	
		작 성 · 문 의	대테러센터 협력조정부 중령 문동수 (Tel. 02-2100-2024)
* 엠바고 : 11.15(화) 14:00(훈련 시작) 이후 사용			

도심지 대규모 · 동시다발 복합테러 대비 테러대응 역량 강화

- 군·경·해경 대테러특공대 참가,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 실시(11.15~17)

-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11월 15일(화)부터 17일(목)까지 3일간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군·경·해경 대테러특공대가 참가한 대테러 특공대 합동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한다.
- 최근 ISIL(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, 이라크-레반트 이슬람 국가)이 이라크·연합군의 모술 탈환작전으로 수세에 몰려 국면전환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는데,
 - ISIL의 외국인테러전투원(FTF)은 관광객·근로자 등으로 신분 위장하여 국내로 잠입,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,
 - 잔존세력은 테러위험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,
 - 파리테러*와 유사한 도심지 동시다발 복합테러를 포함,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테러진압 작전부대들의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.

* 지난 11.13 발생하여 1주기를 맞는 프랑스 파리테러는 극장과 식당, 거리 등 일상공간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상을 자행한 도심지 동시다발 복합테러였음.

- 이번 합동훈련은 군·경찰·해경특공대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공개 훈련으로,
 - 주·야간 불시에 상황을 부여하여 군·경찰·해경 대테러특공대간 합동 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고,
 - 도심지 동시다발 복합테러 시 폭탄테러 대응, 인질구출 등 각 부대의 전술을 공유하는 등 테러대응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훈련이다.
 - 또한, 대화생방테러 전문기관도 참가하여 화생방테러 및 화생방테러를 동반한 복합테러 대응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.

- 한편, 대테러센터는 이번 훈련의 성과와 미흡분야를 검토하여 대규모 동시다발 복합테러 시 소속기관이 다른 대테러부대 간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작전수행절차를 표준화하는 등
 - 향후 지속적으로 테러 예방, 대비, 대응 및 복구 등 국가대테러체계 전 분야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